

헤초여행사 히말라야 입자체 상업등반

#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꿈 함께 실현했어요”

글·양승주 기자 사진·헤초여행사



헤초여행사(대표 석채언·www.hyecho.com)가 운영하는 히말라야 원정상품은 등반준비의 소홀함과 사전 훈련과정의 배제, 보고서 작성의 미비와 같은 상업등반대가 지닐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해외 등반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 주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헤초여행사는 전통 산악인들로 구성된 해외 고산등반 원정대와 일반 여행자를 위한 해외 트레킹 업무를 서비스하며 1992년 설립됐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일반인과 아마추어 등반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등반 상품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 전문등반 상품이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등반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한다는 취지로 재단장해 올해 ‘헤초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였고, 10월17일부터 11월3일까지 과거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안정적인 원정대의 모습으로 입자체 등반을 무사히 마쳤다.

‘헤초 히말라야 원정대’는 설명회를 통해 등반과정과 목표를 확실히 공유한 다음 사전교육으로 등반의 위험성을 줄이고 등반종료 후엔 보고서까지 완료해 ‘도전이라는 테마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이른바 작은 히말라야 원정대를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부터 국내 전문산악인이 리더로 참여하며 한국인 리더 1명과 셀파가 등반대원 5~6명을 책임지는 기준이 충족되기만 하면 소규모라도 진행된다. 고산등반을 위해 헤초여행사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단순한 트레킹에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등반을 통해 가슴 속에 오랜 시간 품어온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부담이 적으면서도 일반 트레킹보다는 어려운 5,000m대 후반에서 6,000m대 초반 봉우리에 도전한다. ‘헤초 히말라야 원정대’는 그들의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정보를 교류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 등반 전 사전교육이 필요한 이유

기자가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헤초여행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헤초여행사 김병구 부장은 그가 직접 통솔했던 2004년 아마



1 입자체 정상에 선 헤초 히말라야 원정대.  
2 입자체 BC 입성 직전의 대원들.  
3 카트만두 도착 후 정상 등정을 기원해 진행한 기념촬영.  
4 출발 전 국내에서 사전교육 후 훈련하는 모습.  
5 입자체 BC에서 정상공격 가상훈련 중인 대원들.

다블람(6,856m) 원정팀을 떠올렸다. 김 부장은 “팀원 4~5명과 함께 캠프1과 캠프2를 오가면서 나이와 등반경험 차이로 인한 등반능력과 고소적응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산악부 창립멤버였던 분도 실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더 많은 셀파가 도움을 줘야 했다. 자연스럽게 셀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른 팀원들이 더 힘들어지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사전에 등반결정권과 통솔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일생일대의 도전과 모험에 나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진 팀원을 하산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전교육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과거 어떤 분은 해외고산원정에 크램폰 대신 체인형 아이젠을 가지고 왔던 적도 있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전문등반에 나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994년 러시아 엘부르즈 등반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고산등반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헤초 익스페디션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전문성 높은 등반훈련과 설명회 개최

헤초의 입자체(6,189m) 등반팀은 10월17일부터 11월3일까지 18일간 등반을 마쳤다. 전문등반가, 등산학교 졸업자, 일반 등산 동호인 등 9명으로 구성된 이 팀 중 8명이 정상을 밟았다. 최고령 팀원은 73세였다. 한국산악회 수석 전임강사 김근생씨가 대장으로 4대륙 최고봉에 오른 김중호씨가 부대장으로 등반대를 이끌었다. 이번 등반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에 이뤄지던 헤초의 상업등반대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 진행된 첫 원정이었기 때문이다.

헤초여행사는 우선 해외 등반을 전담하는 트레킹 부서 17명과 고산등반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1997년 가셔브롬4봉 서벽 신루트 개척을 이뤄낸 유학재 대장, 4대륙 최고봉에 오른 김중호 대장, 그 외 대학산악부 OB들로 구성했고, 이들이 또한 직접 원정에 참여한다. 해외고산 등반시즌이 다가오면 인터넷 신청과 전화 상담을 통해 등반팀원을 모집한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전문등반이 어떤 루트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전문등반을 일반트레킹과 혼동했거나 너무 쉽게 생각했던 신청자에게 스스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등반팀원이 확정되면 헤초여행사가 주최하는 도봉산 등산 기초

교육과 주마링 훈련, 그리고 세 차례 정도 장비사용법을 숙지하는 강좌에 참여하며 사전교육을 마친다.

입자체 등반팀의 김중호 부대장은 “사전훈련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네팔 현지 베이스캠프 훈련도 꼼꼼히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밀도 높은 사전훈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Mini Interview

김수성(우성건설 대표이사51세) 대원  
“등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교육과 실전연습 덕분”



“입자체를 가기 위해 헤초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사전 등산교육을 받았다. 사전 교육은 필요한 장비점검과 함께 실전 암벽훈련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김근생 대장과 김중호 부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살아있는 경험을 등반팀

원들에게 접목시켜 사전교육이 흥미롭게 진행됐다. 일반 트레킹으로 갈 수 없는 높이를 준비해서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고 좋은 시간이었다.

사전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던 등반장비 사용법을 알았고 입자체 등정이란 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대장과 부대장 지도하에 장비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등반팀원들이 처음 접해보는 빙벽화 같은 장비는 서울, 카트만두, 그리고 마지막 산장인 추콩에서도 장비점검과 몇 시간씩의 실습이 진행됐다. 마지막 산장을 떠나 베이스캠프에서 야영하면서도 장비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한 별도의 훈련을 하면서 정상공격을 준비했다. 총 3~4차례에 걸쳐 새로 접하는 장비에 대해 연습한 셈이다. 난 입자체 등반 전까지 7년 동안 말레이시아 키나발루, 캐나다 로키, 중국 쓰촨산, 그밖에 일본의 산들을 갔다. 이렇게 해외 등산을 가는 이유는 2016년 에베레스트 등정이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고도를 높이고 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해오던 일반 트레킹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전문등반으로 입자체 등정을 해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헤초여행사가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사전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모험으로 전문등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헤초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전문등반을 함께할 예정이다.”